

구동에서



김종민 논설실장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쉽게 잠 못 드는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 갑갑한 마음에 산으로 향한다.

어둠이 그치지 않았다. 어명이 밝으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한다. 붉게 타오르는 해를 맞기 위해 재촉해야 한다. 곧일텐데..., 급하다. 한 명 두 명, 간간히 행렬이 이어지곤 하다가 끊긴다. 다소 험에 부쳐 보이기도 하고, 넉넉하게 걷는 사람도 보인다. 목표는 같다. 차츰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얼마나 남았을까? 돌아온 답은 ‘금방’이다. 기대 반 걱정 반 신반의하며 숨이 턱에 닿을 지경에 올라다 왔다. 희미한 여백이 드러나고 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 가까워졌다. 마지막 남은 기운을 냈다.

저문 청룡(靑龍)의 해는 술한 어려움이 있었다. 고통과 고금과 고통으로 기인한 불황의 긴 터널에 5·18민주화운동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 계엄령의 충격이, 또 연말에는 무단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폭발하는 끔찍한 참변이 덮쳤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연달아 일상을 무너 뜨렸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많이 떠났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안부 인사조차 미안하다. 조심스럽다.

앞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만

2025년 청사(靑蛇)의 해다. 뱀은 지혜와 영민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나아가 변혁의 표상으로 인식돼왔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치유의 신으로, 고대 인도에서는 땅과 비를 관장하는 풍요의 존재로 상징됐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의 각별한 의미를 안고 있다. 일제가 강제한 을사늑약을 통해 국권을 침탈당했으나 강렬한 항일투쟁 끝에 독립, 세계 10위 강국으로 자리했다. 국민대통합의 역량을 결집하고,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야 하는 시점이다.

드디어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서울의밤’을 지휘했던 그가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딱 맞다. 무소불위의 제왕적 통치가 총부리를 막은 처절한 저항 앞에 꺾였다. 몹시 심한 흑한에도 은박담요 한 장으로 아스팔트 위에 앉은 국민들이다. 또 한 번의 위대한 승리다. 내란은 물론이고 이후 법 집행을 거부하며 지속된 혼란은 수습될 게다.

역사적 국난 극복의 DNA를 지금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공조수사본부의 조사도 머잖아 결론에 도달한다. 비정상과 비상식, 특권과 반칙의 청산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K-민주주의를 새로 쓰는 중이다.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회복되며, 국민 모두가 희망을 품고 무탈해질 것이다.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급선무는 경제 심리 개선과 내수 시장 반등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 7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마찰 및 안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 슈퍼 트

러피즘으로 증폭될 대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양극화 해결,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부양에 나서야 한다.

‘아보하’는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와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단어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신박한 키워드로 평범한 일상을 빼앗길 뻔했던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작더라도 확실한 ‘소확행’을 추구하는 삶을 넘어서 크게 행복하거나, 그렇다고 크게 불행하지도 않게 무해한 날들의 소중함을 의미한다.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결성이 증시되면서 아무런 큰 일도 없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철학이다.

먹고 사는 게 이득토록 만만찮은 적이 없었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최악이다. 소비절벽, 생산절벽, 투자절벽이다. 상대적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기는 바닥이다. 모질다. 하지만 이 풍진 세상도 곧 지나갈 것이다. 오늘도 무사하, 내일도 평온하길 바란다.

산을 내려간다. 오를 때의 바람과는 다르게 무겁다. 정상에서 마주한 것은 능선까지 드리운 구름이었다. 그리고 보니 비가 흠뻑 댔다. 눈 소식도 있었다. 종택에는 잔설이 머물렀다.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순 없다. 다시 산행을 준비해야 하겠다. 맑게 갠 푸른 하늘은 꼭 나타나야 한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 직후 불려졌던 노래, 네 줄을 지속 반복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문화난장



하숙자

누구일까. 역사를 바꾼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지난 역사는 말하고 있다. 결코 권력의 중심부가 아니었다. 프랑스대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얼마 전 구랍 12월3일이후 광화문과 금남로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가 그 증거다. 지난해 12월3일 밤, 교육지원청에서는 연말 결산과 새해 계획을 준비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계엄령 선포 소식을 전해들었다. 수석장학사의 말을 듣고 모두가 놀란 가운데 TV를 켜다. 국적이 무너지는 광경이 벌어졌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사실일까 하며 눈을 비비고 쳐다 보았다. 이튿날, 관내 학교들은 침착하면서도 신속히 움직였다. 계엄의 의미조차 모르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영화 ‘택스운전자’를 상영하며 5·18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상황을 가르쳤다. 영화는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배움을 제공했다. 그리고 강력한 울림을 줬다.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MZ세대의 항거와 희망

광화문 MZ세대의 힘은 교육의 결실

2030세대, 이른바 MZ세대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지극히 냉소적이었다. 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며 외계인으로 취급받기 일쑤였다. 도대체, 동시공간에 같이 살아가면서도 말이 통하지 않고 제멋대로인 MZ세대에 대해 가족 내에서도 부정적인 관점이 컸다. 아들, 딸들과 말이 통하지 않았다. 직장에서도 다를 바 없다. 그동안의 경험과 언론에서 얻은 지혜라도 알려줄라치면 ‘꼰대’ 취급을 하기 일쑤였다. 시니어들에겐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12월의 광화문과 금남로에서, 그들은 불의에 분노하며 항거의 중심에 섰다. 그들에 대한 시각이 확 달라지게 된 기점이었다. 공분할 줄 아는 이 젊은이들은 우리 교육의 자랑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우뚝 섰다. 학교에서 30년간 민주주의 교육과 학생 자치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성과가 아닐까. MZ세대는 어 느슨가 우리사회의 믿음직한 보배가 돼 있었다. 정의와 양심을 지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인 것이다.

지역사회의 연대와 책임

얼마 전 00광역시의 한 고등학생이 실종되었는데, 그 학생의 마지막 모습이 진도 의신면 한 마을의 CCTV에 포착됐다. 실종된 학생은 진도와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실종된 학생을 찾기 위해 경찰과 의신면 주민들이 함께 나섰다. 경찰은 기동대를 조직하고, 주민들은 방범대를 꾸려 밤낮으로 수색에 나섰다. 부녀회와 상가 주민들은 교대로 떡국을 준비하고,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

들에게 물품을 지원하며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이뿐 아니다. 무단공학 참사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나섰다. 전담의 학부모들은 교원 정원 감축에 반대하며 8천100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풀은 바람보다 먼저 높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위대한 시민들이었다.

교육의 역할과 미래

2025년 교육 계획을 다듬으며, 교육지원청은 지역과 함께 걸어갈 기반을 준비 마련 중이다. 남도의 전통문화예술을 간직한 진도답게, 교육지원청은 아리랑갤러리를 중심으로 예술작품 전시와 학생·교직원 초대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예술인들과 학교가 연계해 전통예술을 이어가며, 예술영재들은 국립 및 군립 국악원과 협력해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아울러 진도의 의(義) 정신을 기반으로 마을 곳곳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소환하여 공동체 정신과 역사의식을 키우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12월의 광장에서, 마을의 골목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연대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건 우리 교육의 성과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이 영글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권력은 중심부가 아닌 모든 제 각각의 변방에서, 권력자가 아닌 민초들에게서 나온다.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것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독자투고

2024년 통계청의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쌀소비량은 2014년 66.1kg에서 2023년 56.4kg으로 10년 사이에 13.4% 감소했다. 설날을 계기로 쌀 소비를 활성화하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탄수화물이 비판의 원인’이라는 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 쌀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균형 잡힌 식단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홍보하고, 특히 지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알려 잠재적 소비를 늘려야 한다.

둘째, 쌀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개발이

설날 맞아 쌀 소비 늘려요

필요하다. 쌀은 단순히 밥을 짓는 재료에 그치지 않고, 떡, 죽, 리조토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므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간편식이나 퓨전 요리로 쌀을 재해석한다면 쌀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지역별 특산 쌀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이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독특한 맛을 가진 우수한 쌀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캠핑족을 위한 소포장 상품 등을 이용해 관광객들에게 지역 쌀의 우수성을 알려야 한다.

(유효상·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농업·농촌이 갈수록 어렵지만 우리 민족의 근간인 쌀 소비를 늘려 농업인들이 웃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농협도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판매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로 푸른 뱀(靑蛇)은 생명력과 지혜, 변화를 품고 끊임없는 성장을 의미한다고 한다. 우리 농업도 푸른 뱀처럼 2025년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다가온 설 명절 차례상 준비도 겁나는 최악의 불황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60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농할상품권)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차례상을 준비하려면 시장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서 4인 가족 기준 평균 18만8천230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는 2만8천446원으로 5% 올랐다.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13.8% 저렴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미 천정부지다. aT 조사에서는 배추와 무가 전년 대비 각각 56.1%, 98.0% 급등했다. 과일도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배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1.5% 상승했다. 소·돼지고기도 기저효과로 인해 올랐다. 전과 나물로 활용도가 높은 애호박과 시금치는 18.6%, 6.2%, 못감은 18.5%, 밤은 9% 하락했다. 사정이 이러하

니, 국내산을 마다하고 수입산 거래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어지간히 부담이다. 고물가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불황의 장기화와 함께 서민들 사정 또한 여의치 않다.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 곤혹스럽기만 하다.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대목 특수를 누리는 것, 비판적이다. 정부와 정치권 나름으로 다양한 부양 정책을 펼치는 중인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경기가 소폭 개선될 것이라 기대도 있으나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돈한 회복은 힘드려 보인다.

소비자들의 지갑이空空 단허 있다. 또 비었다. 임시공휴일(27일) 지정으로 연휴가 9일(31일 개인휴무면 9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땅찮다. 그렇다고 차례상 차리기까지 포기할 수 없다면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한다. 할인 내용 등 알뜰 구매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악의 불경기 속에 최대 명절이 다가왔다.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시비 예사롭게 봐선 안돼

광주 남구가 광주대학교와 2025-2027년 남구 청소년수련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시설 유지·관리를 도맡으며 모든 비용을 프로그램 수익 등으로 자체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이번에는 ‘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남구는 3년 단위로 경선하고 있는데, 광주대는 앞서 2019-2021년, 2022-2024년에도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공고에는 단독 신청했다. 그동안 광주대는 첫 해인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인건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2020년 2억8천338만6천원, 2021년 3억888만5천원, 2022년 3억2천400만원, 2023년 3억8천919만8천원, 2024년 4억2천5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수련관 이용률 저하 등에 따른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안정적인 수련관 시설 운영을 위해선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앞선 수탁자 송원대학교의 경우에 일부 보조금 형식 외, 인건비는 지원받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일부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협약에 아예 구체 근거

를 적시함으로써 특혜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2023년 7월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운영과 예산 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이다. 남구 뿐 아니라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별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이용객이 줄어드는 이유도 면밀하게 점검해봐야 한다. 복지시설 수요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분명히 발길이 뜸해지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집중 분석을 통해 활성화 도모해야 한다. 지금처럼 적자가 반복해서 누적된다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전략할 수 밖에 없다. 민간 수탁자 구하기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남구의 항변대로 특혜는 아니길 바란다. 많은 주민들이 찾도록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도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마이너스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예사롭게 여겨선 안 된다.

다카시 광장

꽃맞이 달 강영준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렸으니 달맞이꽃이 얼마나 좋겠냐

차라리 내가 내려가겠다

*시작 노트
추운 날과 밤들! 마음까지 추운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태울 때

장갑 낀 손으로 서터 누르기가 차마 미안해서 장갑을 벗고 짝웃습니다.

저리, 차갑다는 말마저도 달맞이꽃을 염려할 법하야...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두 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